



Hello, I am Sr. Rosemary Donley.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after graduating from Sacred Heart High School where I met our sisters. During my first year of novitiate the superiors decided that I should be a nurse. It was a new idea for me. I took the examinations and began the nursing program at Seton Hill as our second year of novitiate began. In the fall, I was sent to Pittsburgh Hospital to study clinical nursing. Before I graduated, the administrator decided that I should be a teacher. That fall, I enrolled in St. Louis University and began to study



for a baccalaureate degree in nursing. I had a fellowship that required that I practice 16 hours a week at one of the university hospitals. I practiced and lived at St. Mary's Hospital. My religious formation and my preparation to be a nurse were intertwined.



Unlike most members of my group, I have had one ministry; I have been a nurse for my entire religious life. I have practiced in Pittsburgh and St. Louis Missouri and

taught nursing at Pittsburgh Hospital,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UA) in Washington, DC. and at Duquesne University in Pittsburgh.

The community has educated me for my ministry. I hold a PhD in Public Health and Higher Education and I am a certified adult nurse practitioner. Most of my life was spent in Washington, DC. CUA was a very interesting place. I was the Dean of Nursing and the Executive Vice President there. During those years, I learned about



the inner workings of the Catholic Church; traveled to Rome many times; and met Mother Teresa and Pope John Paul II.



I have also served two terms as a council member of the General Council. Currently, I

hold an endowed chair in justice for vulnerable people at Duquesne University. Each year, we present the McGinley-Rice symposiums. You can visit the site at [www.duq.edu/social-justice](http://www.duq.edu/social-justice). Two weeks ago, our theme was the *Face of the Person with a Disability*.



It is hard to believe that on September 8, 2016, our group celebrated 60 years as Sisters of Charity.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마리 던리(Rosemary Donley) 수녀입니다. 세크레드 하트 고등학교(Sacred Heart High School )를 졸업하고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바로 그 학교에서 우리 수녀님들을 만났지요. 제가 1년 수련자 때 총장 수녀님이 저에게 아주 새로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바로 간호사가 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2년 수련기에 들어가면서 씨든 힐에서 간호 공부를 시작했고, 그 해 가을 피츠버그 병원 (Pittsburgh Hospital)에서 임상간호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간호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저에게 내려진 또 다른 결정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가을 다시 세인트 루이스 대학 (St. Louis University) 에 입학하여 간호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6 시간의 실습을 해야 하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세인트 메리 병원(St. Mary's Hospital) 에서 지내면서 실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양성기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기간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어요.



저의 그룹 대부분의 수녀님들과는 달리 저는 한 가지 사도직 만을 했지요. 저는 수도생활 내내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피츠버그와 세인트 루이스 미조리에서 실습을 했고 피츠버그 병원 (Pittsburgh Hospital), 피츠버그 대학교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워싱턴 D.C. 의 미국 가톨릭 대학교(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UA in Washington, DC)와 피츠버그의 듀케인 대학교(Duquesne University in Pittsburgh)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도회는 제가 사도직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고 공중보건과 대학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 삶의 대부분을 워싱턴 DC 에서 보냈지요. 미국 가톨릭 대학(CAU)은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간호학과 학과장과 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 안의 일을 배웠어요. 로마를 여러 번

방문했고 마더 데레사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만나 뵈었지요.

그리고 저는 총이사로서 두 번의 임기 동안 봉사했습니다. 현재는 듀케인 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며 취약한 이들을 위한 정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맥긴리-라이스 심포지엄(the McGinley-Rice symposiums)을 열고 있습니다. 올 해는 2주 전에 ‘장애인의 얼굴 (the Face of the Person with a Disability)’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수녀님들도 저희 웹사이트 [www.duq.edu/social-justice](http://www.duq.edu/social-justice) 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8일 저희 그룹은 수도생활 60주년을 지냈습니다. 60주년이라니 믿기지 않네요!